

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研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方面의 研究를 뒷받침하여 줄 史料의 발굴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 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을 빼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및 中國과의 關係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어느 자료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 研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研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研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研究業績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研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凡 例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의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纂한 것이다.

二、明代의 만주, 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 다만, 몽고 및 몽고 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르지 아니하였다.

三、明代의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 민족의 활동 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 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 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사항을 관련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末리에 參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 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四、索引 一卷을 人名, 地名을 찾아보기에 편리케 하였다.

五、원본에는 異字, 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들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體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六、俗字, 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 그러나, 너더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七、正俗 二體 이상을 아울러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 潛·潛·潛을 潛으로 통일한 따위이다. 그러나 원본의 舊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 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 贊歎 따위. 그러나, 예외도 있다.

一、원본에서 틀림없이 誤字·脫字·衍字·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그에 그 교정 정오표를 붙였다. 다만, 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겸양에서, 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보여서 이다.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 의식적으로 한 慣用(普通을 포함)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는 영의(マ、)을 붙였다.

二、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掲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나타내려 하였다.

가、○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 즉, 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掲出한 경우이다.
나、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掲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할 경우이다. 즉, 先行의 기사의 머리에 掲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없을 때에는, 이 干支들 사이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干支^先行——干支^後續 ○(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사 머리에 干支를 掲出하지 않고, 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즉, 先行 干支와 後續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있을 때는 이 干支들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慎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히 「나」와 구별하여 원본의 재를 보존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틀 이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카」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掲出하여 干支(○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 三月

景仁文化社

目次

世宗實錄

世宗二十九年(正統十二年).....一

世宗三十年(正統十三年).....三

世宗三十一年(正統十四年).....四

世宗三十二年(景泰元年).....八

平安道地理誌.....九

咸吉道地理誌.....一〇

文宗實錄.....一〇九

目次

二

文宗零年(景泰元年).....二二

文宗元年(景泰二年).....一五〇

文宗二年(景泰三年).....二〇九

魯山君日記.....二四三

魯山君零年(景泰三年).....二四五

魯山君元年(景泰四年).....二六三

魯山君二年(景泰五年).....二九〇

魯山君三年(景泰六年).....三二〇

世祖實錄.....三四五

世祖元年(景泰六年).....三四七

世祖二年(景泰七年).....	三六五
世祖三年(天順元年).....	三八四
世祖四年(天順二年).....	四〇〇
世祖五年(天順三年).....	四三一

世宗實錄 卷一百十五

二十九年正月

〔參〕丁卯○司憲府啓行城之築已遣從事官矣且其民慣於築城雖不遣體察使監督事可濟矣比來年饑民間飢困凡一小官奉使出外州縣供億之費驛路迎送之弊甚多況大臣乎請勿遣都體察使以除民弊不允

戊辰○諭平安咸吉道都節制使今聞朶顏衛韃靼與（海西力）西海野人謀

欲寇邊此言雖不可信然賊之詭計固難知也備禦之策毋或小弛

〔參〕○庚午遣都體察使皇甫仁于平安道築行城自碧潼郡小波兒松林峴至于非所里平石築一萬四千四百七十一尺削土八千一百七十八尺役本道民五千七百四十人又自定寧郡玉剛洞口至于獐項峯石築三千一百五十三尺削土一千五百尺有關門瓮城烟臺役其郡民四百人

皆以二月十五日起築至三月十五日而止以里計者十五里五十步二尺

○壬申聖節使李堅基奏聞使金何奉勅回自京師勅曰前得遼東都司奏王國移文稱今年四月有野人突入王境殺虜人口頭畜而去及聞李滿住等所管之人累對王國之人言欲報復此必滿住等含憤所爲等因已勅遼東總兵鎮守官差官往女直野人地面挨追近者都督別里格等將所槍_(鎗力)王國男婦十人送至遼東已給與衣糧優養其別里格等來京備奏比先女直者兒兀等在建州居住宣德八年被王國軍馬槍殺_(鎗力)甚衆內槍男婦十口見在王國所遣幼少今已長成委是報復前讎今謹遵朝命送還朝鮮人口請朝廷一體差人往王國挨取見在人口給還免致彼此讎怨等情詞極懇切誠可憐憫朕以王爲秉禮之邦若復差人不免煩擾已_(已力)撫慰別里格等

回衛俟候茲將彼挨還人口付王國使臣李堅基等領回給親完居
勅至上宜體朕此意遣人於境內挨查女直者兒兀歹等家男婦十
口送遼東摠兵等官處給還其親非特遂彼骨肉之情王之邊境亦
得永寧王素重德義爲賢藩屏宜敦崇和睦保境恤隣用造下人之
福副朕一視同仁之心王其欽承之（下略）

壬申○安平大君瑤奴金伐介居閭延曾被虜久在野人地面後茂
昌千戶李乙孫之女又被虜而去伐介娶以爲妻及其妻刷還代介
竊騎野人馬隨後逃來上憐其累年被虜而還特命免賤授上林園
副給事

○甲戌以骨看副萬戶劉無澄介加萬戶吾都里司直童敦道加副
萬戶骨看司直李汝於加副萬戶骨看司直李都之麼加副萬戶兀
良哈司直伊下所加副萬戶

戊子—(庚寅)○遣工曹參判李穰如京師謝恩表曰〔中〕又奏曰今承勅諭令還女直者兒兀歹等家男婦十口臣竊嘗宣德八年正統二年兩次所獲人口頭畜零瑣物件仰體勅諭事意盡行送還無有一口存留今次昔居建州者兒兀歹所索十口若係被虜人數合於宣德八年俘虜人口追還之後萬住等回報文書必當告說又於正統六年滿住管下卜刺兀根隨欽差指揮吳良等官前來本國刷還時分亦不告索經今年久略不告取本賊等違背累降勅旨乃於正統十一年四月突入本國茂昌地面恣行作賊虜掠邊民分占爲奴及蒙降勅責令刷還不敢違了巧生奸計規免罪惡虛捏奏達情狀明著伏惟聖鑑臣今欽蒙聖上憐憫小邦刷還被虜人口聖恩深重圖報無由些小俘虜何計損益以有爲無敢愆不還仰冒天聰聖慈矜

察方物表曰〔略下〕

○童所老加茂來獻馬一匹

二十九年二月

甲午○野人萬戶金時具等七人來獻土宜

〔參〕癸丑○遣通事金辛于遼東告入朝火者張智生親喪又咨曰商倭也馬沙只言對馬一岐島上松浦等處倭人修治五十餘船欲於二三月間入寇上國沿海之地此言雖不可信然係邊境聲息爲此馳報

世宗實錄 卷一百十六

二十九年閏四月

〔參〕○辛未平安咸吉道都體察使皇甫仁來復命啓曰三水郡新設軍門也五鎮及甲山外其餘內地州郡人民自願移居者勿許還本付籍存恤理山郡之別何里章巾里博實里白都洞居民每年十月入保棘城至明年三月乃放以此行旅撤毀路傍民家且竊窖藏穀種年年不得趁時耕種生理凋殘右里皆江邊深入之地旣置兵于要害阿耳口子以固守禦今後勿令入保以安其生今年築城軍人未畢役而逃者其監考頭目色掌及首唱人於新設虞芮郡全家入居沿邊州郡住甲士除他郡赴防各其所居赴防前此自碧潼至理山自理山至江界並以內路通行而理山江界之間遼遠故於其中北洞之地設合排以遞馬今因防禦理山郡事常

在江邊央土里口子割理山江界之地設渭原郡于江邊由是大小使客皆從碧潼抵央土里渭原江界以爲常行之大路遞馬皆用軍人之馬其弊甚巨北洞合排旣無使客經過而所屬凡五十四戶請移屬三十戶于渭源（原力）以除軍人立馬之弊甲山郡本千戶四人百戶八人分八所防禦今別置邑於三水堡請減防禦之所革千戶一人百戶二人但千戶三人百戶六人依五鎮例下批且甲山人受咸興鏡城府土官者勿仕本府仍於其郡防守鴨綠江邊勢孤難救之地潛隱耕田者頗多令監司節制使者察不得耕作初置央土里木柵時不審定基址設於山背欹斜之地不宜邑城舍人巖之南山回水抱且有井泉請於農隙設壁城

○丙子謝恩使工曹參判李穰回自京師言遼東摠兵官曹義言今夏深處達達討平三衛達子欲攻海西野人恐將深入後門須啓殿下謹慎備邊遂下諭書于平安咸吉道申嚴隄備

辛巳—癸未○諭平安道監司今聞孟山縣民相率而逃不出一二

年必至失邑予恨晚聞此言也其凋弊之由救之之術卿親審商度具聞時方築城邊民大困民著簣以蔽體或食土而裂腹或死於疾疫式死於木石流入遼瀋者不知其幾千相率而逃一道皆然無人啓陳至是上始聞之

○戊子諭咸吉道都節制使通事崔倫啓中國人言深處達達瓦剌也先將兵億萬幾殲三衛達子又於夏秋間謀襲海西野人野人畏懾挈家登山其界若有深處野人往來者密令聞見以啓防禦諸事益動布置以備不虞

二十九年五月

丙辰○禮曹啓宗金帶來唐人觀音保言本住金山衛年十四被擄到花加島留三十餘年思戀鄉土(懇力)懇告宗金隨來(略中)上竟從演等議

移咨遼東遣通事安至善押送(略下)

二十九年六月

○戊子諭平安道監司今通事金辛回自遼東啓達達也先大師屯兵黃河冬月欲攻海西野人遼東閱軍隄備建州李滿住曾往北京自請扈從閏四月挈家赴京童倉凡察亦無如之何欲將向東屯居予料也先旣滅三衛欲殲海西諸種野人莫不畏懼不敢寧居蓋其勢方張如此其盛將來之變難以盡知卿密知此意一應防禦諸事預慎布置

世宗實錄 卷一百十七

二十九年七月

〔參〕戊戌○遣都體察使皇甫仁于咸吉道命都承旨黃守身賜宴于興仁門外餞之又命議政府餞于普濟樓賜花酒以極寵慰之築行城自會寧府北東時家南峯至于吾都里金瑞家之里石築八千七百四十九尺削土四萬一千七百八十九尺役本道民八千五百二十六人八月初五日起役九月十四日而止又自三水郡西魚沔江口至于桑木原石築三千五十尺役甲山三水民一千人八月初五日起役九月初五日而止以里計者二十九里二百三十一步二尺時仁銳意築城每歲春秋出入兩界不避凶荒西北之民疲焉

〔參〕癸卯○傳旨禮曹倭野人誠心來獻之物有司定品率置下等抑價題給